

# 艾靑 후기 詩의 정치 서정시적 특질과 강점 연구\*

鄭雨光\*\*

##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정치 서정시
3. 짧지만 고도로 응축된 서정
4. 결론

## 1. 문제의 제기

아주 많은 소리를  
이동시켜  
너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뛰어든다

모든 악기를  
조직하여  
천군만마처럼  
통일된 목표를 향해 행진한다……

네 귀는 정찰하고 있고  
네 눈은 경청하고 있다  
네 지휘봉 위에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 전공 교수. wkjung@sookmyung.ac.kr

네 신경이 뛰고 있다

(중략)

너는 작전을 지휘하는 패기를 지닌  
너는 음악 진지의 장군!  
최후의 쉼표에 이르자마자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박수소리……1)

위의 시는 아이칭艾青(1910-1996)이 1978년 6월 16일에 쓴 〈오자와세이지小澤征尔〉란 시이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일본인 음악 지휘자인 오자와세이지(1935-)는 악보 암기력이 뛰어나고 화려하고도 유연한 지휘로 정평이 나 있다. 아이칭이 이 시를 쓰기까지는 실로 고단한 삶을 경험하였다. 그는 1958년 48세의 나이에 右派 분자로 몰려 당적을 박탈당하고 모든 직무에서 해직된 후 1978년(68세) 복권되어 작가활동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20년간의 下放 생활을 하였다. 下放 기간 동안의 창작은 1964년에 씌어진 〈너를 환영해-새로운 일년欢迎你啊-新的一年〉을 포함한 5수와 1977년 국제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씌어진 〈나는 그녀의 노래를 사랑한다 我爱她的歌声〉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거의 창작의 공백기라고 할만한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고 1978년 4월 30일 《文匯報》에 그의 〈붉은 깃발紅旗〉이란 시가 발표됨과 동시에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중기까지 ‘아이칭의 시대’라고”<sup>3)</sup>까지 칭해졌던 중국 시단의 대표적인 시인의 歸來는 중국 문단에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오자와세이지〉는 아이칭이 복권된 해에 씌어진 시이다. 이 시에서는 오자와 세이지의 지휘를 전쟁터의 장수의 역할에 비유하고 있다. 온갖 악기를 조율하며 탁월한 화음을 완성하는 지휘자의 이미지를 시로 형상화하는데 전투정신이란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시의 형식을 빌렸지만 유치할 정도의 예술적 깊이를

1) 艾青, 《艾青全集》(第2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p. 399-400. 把衆多的聲音/ 調動起來/ 聽從你的命令/ 投入戰爭:// 把所有的樂器/ 組織起來/ 像千軍萬馬/ 向統一的目標行進……// 你的耳朵在偵察/ 你的眼睛在傾聽/ 你在指揮棒上/ 跳動着你的神經://……// 你有指揮彈弓的魄力/ 你是音樂軍地的將軍!/ 緊接最後一個休止符/ 刮起了經久不息的掌聲……

2) 艾青, 《艾青全集》(第2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p. 369-388.

3) 程光燁·吳曉東·孔慶東·鄧元寶·劉勇 主編, 《中國現代文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p. 311.

지니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기가 힘들다. 3연에서 나타나는 청각과 시각의 전이현상도 혼신의 지휘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선택이었다면 “네 지휘봉 위에/ 네 신경이 뛰고 있다”라는 구절은 너무나 평범하다. 아이칭에 의해 씌어진 시라기에는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물론 이 해에 그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물고기 화석에 비유한 〈물고기 화석漁化石〉, 우산을 의인화하며 문답으로 인생의 철리를 읊은 〈우산傘〉, 바람과 비와 구름과 함께 번개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번개電〉, 정직함을 사랑하는 거울의 속성과 그것에 대한 인간들의 호불호의 욕망을 노래한 〈거울鏡子〉 등의 수작들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문학사자들은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이후 그가 쓴 시에 대하여 그 이전의 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sup>4)</sup> 중국의 삼·사십 년대를 대표했던 시인으로, 시대정신과 민족전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의 경험을 우울한 정감 속에서 노래하여 ‘칠월시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의 문학 세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아이칭의 1949년 이후를 시를 후기로 분기하여 전기의 시와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sup>5)</sup> 특히 1949년 이후의 시 창작 속에서는 상당수의 정치 서정시를 찾아 볼 수가 있다. 그가 정치 서정시를 쓴 이유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후기의 삶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치 서정시를 배제한다면 후기의 창작에서 그의 시가 지닌 강점은 과연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6)</sup>

4) 伊沙, 張闕, 徐江, 秦巴子, 沈浩波 等著, 《十詩人批判書》,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1, pp. 58-87.

McDougall, Bonnie S. and Louie, Kam, *The Literature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를 보면 1949년 이전의 시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5) 전기와 후기의 시기 구분 및 전기 시의 특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좋고, 〈艾青 전기 시의 심미 특색 연구〉, 《中國語文論叢刊》(47집), p. 423-444. 이 글에서는 전기의 심미적 특색으로 ① 시란 眞, 善, 美의 통일체 ② 생활 체험의 구체적 이미지를 통한 ‘형상’의 명확성 추구 ③ 민족정신과 시인 개인의 정감의 융합을 통한 시대정신의 구현 등을 분석의 틀로 삼아 논의를 전개했다.

6) 후기의 시는 상당수가 정치 서정시의 특색을 가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생에 대한 찬미와 초탈, 우주적 철리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소회, 인간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갈망 등의 다양한 주제의식이 나타나는 수작들도 존재한다. 너무나 다양한 주제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특히 孫惠蘭은 1978년부터 1988년까지의 시 총 189편을 주제의식별로 분류하여 희망과 열정의 묘사, 자연묘사와 생의 찬미, 철리의식의 투영, 자유민주와 세계평화의 갈망, 회상과 초탈의식의 표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 2. 정치 서정시

이십년의 下放 생활 끝에 1978년 4월 30일 《文匯報》에 처음 등장한 〈붉은 깃발〉이란 시는 문혁기간 동안 온갖 고초를 겪고 復權된 아이칭의 감격과 흥분만 큼이나 상투적인 정치 서정시이다.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행군 중에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는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 선명한 붉은 색을 환기시키기 위해 ‘불’, ‘피’, ‘하늘나리’, ‘막 떠오르는 태양’ 등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중국 인민들의 저항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은 붉다  
피는 붉다  
하늘나리는 붉다  
막 떠오르는 태양은 붉다

가장 아름다운 건  
진진 중의 바람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이다!

붉은 깃발은  
끓주림과 추위가 동시에 닥치는 중에 탄생한다  
천년의 속박으로부터 탄생한다  
그는 진리를 위해 투쟁한다  
금빛의 낮  
금빛의 쇠망치  
노동의 영광과  
농공 단결의 승리를 선포한다

길고 긴  
질식할 것만 같은 킁킁한 밤에  
돌연한 천둥소리

---

손혜란, 〈艾青後期詩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육대학원, 2003.

“전 세계 무산자들이여, 연합하자!”  
그리하여  
만장이나 변쩍이는 빛을 따라  
붉은 깃발은 역사의 무대에 오른다<sup>7)</sup>

(중략)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과 함께 중국의 역사 무대에 오른 오성홍기는 무산계급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지만 반대로 착취계급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었다. 이어지는 연에서는 ‘붉은 깃발’을 ‘불’에 비유하면서, “피압박자의 반항의 불/ 착취당한 자의 분노의 불/ 온 세상 고통을 받은 자의 불/ 자유를 쟁취하고, 해방을 구하는 불<sup>8)</sup>”이라고 노래한다. 이 ‘불’은 ‘도약하고(跳跃)’, ‘날 듯 달리고(飞奔)’, ‘활활 타오르고(熊熊燃烧)’, ‘타면 탈수록 치열해져(越烧越热烈)’ 사유재를 소멸시키고 구세계를 매장시킨다.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오성홍기는 “이상의 상징/ 신앙의 표지/ 전투의 호소/ 굴하지 않는 고무”였기에 “그와 함께라면 영원히 승리 하리라<sup>9)</sup>”고 외친다. 아이칭의 시에서 불의 이미지는 태양의 이미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태양, 등불, 햇불, 빛 등 다양한 이미지군으로 등장하는<sup>10)</sup> 불의 이미지는 아이칭의 전기와 후기의 작품을 통틀어서 원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이미지요, 활활 타오르는 상승과 역동의 이미지요, 악습과 구습을 깡그리 없애는 청산의 이미지요, 새로운 탄생을

7) 艾青, 《艾青全集》(第2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p. 391-392. 火是紅的, / 血是紅的, / 山丹是紅的, / 初升的太陽是紅的, // 最美的是 / 在前進中迎風飄揚的紅旗! // 紅旗 / 從飢寒交迫中誕生, / 從千年的牢籠裏誕生, / 它爲真理而鬥爭, / 金色的鐮刀, / 金色的錘子, / 宣告勞動的光榮, / 工農團結的勝利, // 在漫長的 / 令人窒息的黑夜裏, / 突然一聲驚雷: / “全世界無產者, 聯合起來!” / 于是 / 隨着萬丈閃電的光, / 紅旗登上歷史舞臺: //……

8) 위의 책, pp. 392-393. 是被壓迫者反抗的火, / 是被剝削者忿怒的火, / 是普天下受苦人的火, / 是爭自由, 求解放的火,

9) 위의 책, p. 393. 它是理想的象徵 / 它是信仰的標志, / 它是戰勝的號召, / 它是不屈的鼓舞, / 和牠在一起就永遠勝利:

10) 박남용, 〈애칭의 근대체험과 시적 이미지 연구〉(한국의국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52-165. 특히 박남용은 “艾青의 시세계 중에서 불과 태양, 빛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주로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1958년의 〈燒荒〉과 1978년의 〈紅旗〉, 1982년의 〈路〉 등의 작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알리는 희망과 광명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든 이미지를 포용하는 붉은 그의 일관된 시풍인 '원초적 생명력'을 노래하기 위한 핵심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붉은 깃발〉의 마지막은 아래처럼 상투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

아  
진리를 위해 투쟁한 깃발  
노예를 위해 해방을 추구한 깃발  
영광의 깃발  
승리의 깃발  
바람에 펄럭이는  
위풍당당한 깃발  
장엄한 깃발

천만 얼굴의 붉은 깃발은  
붉은 색의 물보라처럼  
영원히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을 인도한다  
승리의 환호를 이끌면서  
공산주의를 향해 질주한다……<sup>11)</sup>

사실상 위와 같은 정치 서정시는 전기의 연안시기(1941-4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이칭은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武漢(1937년), 西北(1938년), 桂林(1939년), 重慶(1940년) 등지를 떠들다 1941년 3월 延安으로 가게 된다. 延安으로 가서 쓴 시들 중, 히틀러(1889-1945)의 만행을 규탄하는 〈히틀러希特勒〉(1941), 시인과 의로운 강도의 유사성을 노래한 〈강도와 시인强盜和诗人〉(1941), 인민의 영웅이라고 마오쩌둥(1893-1976)을 칭송하는 〈마오쩌둥毛泽东〉(1941),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에게 추방당한 이후 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읊은 〈자매들에게给姊妹们〉(1942), 일제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에 망명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조선의 혁명 열사

11) 艾青, 《艾青全集》(第2卷), p. 394. 啊, / 爲真理而鬭爭的旗, / 爲奴隸求解放的旗, / 光榮的旗, / 勝利的旗, / 迎風招展的, / 威武的旗, / 莊嚴的旗, // 千萬面紅旗, / 像紅色的浪花, / 永遠在我們前面, / 引導着我們, / 帶着勝利的歡呼, / 奔向共產主義……

들을 기리는 〈추도사-반과시즘 투쟁 중 순국한 조선 열사들에게 바칩悼詞-獻給反法西斯斗争中殉难的朝鮮烈士們〉(1942), 연안 생활의 행복감을 노래한 〈세계를 향해 선포하노라向世界宣布吧〉(1942), 소비에트 연방의 10월 혁명을 축하하는 〈시월을 축하한다十月祝賀〉(1942), 重慶의 국민당 정부와 南京의 왕징웨이汪精衛(1883-1944) 괴뢰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는 〈두 친가兩親家〉(1943) 등이 대표적인 정치 서정시로 분류될 수 있다. 그가 연안 시기에 이러한 정치 서정시만 쓴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혁명적 선동성과 전투성이 충만하여 그가 이전 시기에 일관되게 유지했던 심미적 특징과는 확연히 유리되어 있다. 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보다 더 산문화를 이룩하여, 구호와 강연의 말투를 행과 연으로 만들었을 뿐 시적인 맛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4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시풍의 변화에 대하여, 쉬장徐江은 그 원인으로 첫째, 戰爭과 救亡 시대의 주제는 아이칭에게 자기 작품의 구 풍격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애국적 지식인으로서, 문단에 등단한 이래 현실주의적 시학 입장을 스스로 엄수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시가 더 많은 독자들을 갖기를 갈망했다. 이로 인해서 더욱 시대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게 되었고, 조국의 명운에 복무하는 것이 문학가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항전과 사회에 대해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편 중에 원래 있었던 자성과 명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명랑한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둘째, 항전의 파도가 점차 거세지는 것도 시의 주요 독자층인 청년들의 열독의 습관을 변화시켰다. 난해한 상징파의 시나 변화무쌍한 현대파의 시가 이 당시 신시대의 전투적 주제를 지탱할 힘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주의력이 냉혹한 전사나 보통 사람들의 운명을 직면하는 현실주의 시나 애국적 낭만주의 시로 전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셋째, 좌익 문학적 창작 사상 및 후에 연안 근거지의 혁명 시학 주장과 문예공작자에 대한 공산당의 중시와 관심은 지식분자 시인이었던 아이칭에게 자신과 工農 간의 거리를 좁혀, 시대적 대합창의 선율에 호응하고 민족의 부흥과 독립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만들었다. 또한 동시에 당의 영도자에 대한 충만한 감

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苦痛의 예술관과 세계관으로 개조되는 길에 참여해야만 했다.<sup>12)</sup>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그의 창작이 연안시기부터 일정 정도 거칠고 조잡한 경향을 띠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아이칭은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10월 華北文藝工作團을 따라 張家口로 갔고, 후에 華北聯合大學의 文藝學院 副院長이 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으로 실제 조직에 투입되어 복무해야 했기에 1949년까지 시가 창작은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의 양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치 서정시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듣고 쓴 〈광란의 밤狂歡的夜晩〉(1945), 인민 해방군을 찬양한 〈해방군가解放軍歌〉(1945), 일본군과 싸우다 희생한 전사를 애도하는 〈만가挽歌〉(1945), 河北省 북서부에 있는 도시인 張家口를 예찬한 〈인민의 도시人民的城〉(1946), 우리의 대오를 청춘에 비유하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노래한 〈청춘의 노래青春之歌〉(1946), 공산당 최초의 당원으로 옥고를 겪기도 했던 왕뤄페이王若飛(1896-1946)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들을 그리워한다想起他們〉(1946) 등을 들 수 있다.

1949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오성홍기가 국기로 확정되자 아이칭은 〈국기國旗〉란 정치 서정시를 썼다. 이후 《인민문학人民文學》의 副主編과 全國文聯委員 등의 직책을 얻으며 문단의 핵심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1957년 반우파 투쟁이 시작되자 우파분자로 분류되어 北大荒으로 下放을 가서 산간 개척 작업에 종사할 때까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정치 서정시를 토해냈다. 이 시들은 걱정으로만 가득 차 시대에 암합하고자하는 저급한 욕망만을 드러냈을 뿐, 충분한 경외와 자성이 부족했던 창작들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탈린(1879-1953)과 붉은 모스크바를 찬양한 〈스탈린에게贈給斯大林〉(1949), 미국의 침략 앞에 아시아인들이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주장하는 〈아세아인이여, 일어나라亞細亞人, 起來!〉(1950),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는 〈나는 평화 호소문에 서명한다我在和平呼于书上簽名〉(1952),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1893-1971)의 유럽 방문을 비난한 〈수치스런 여행可恥的旅行〉(1953),

12) 伊沙, 張闓, 徐江, 秦巴子, 沈浩波 等著, 《十詩人批判書》, pp. 66-68.



1954년 7월초 파블로 네루다(1904-1973) 50탄신을 경축하기 위해 칠레를 방문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국 달러에 찍어진 '자유'라는 글자를 보고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자본주의를 비판한 〈자유自由〉(1954),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바친 獻給亞比會議〉(1955), 수력발전소에서 감독으로 일하느라 일년이나 귀가하지 못한 남편을 새벽부터 기다리는 아내에게 그것은 조국에 대한 충성이자 그녀에 대한 애정이라고 읊은 〈새벽 세 시 早晨三點鐘〉(1956), 雲南省 昆明市 서남쪽에 있는 댜츠란 고원 호수로 파블로 네루다와 함께 여행하면서 신 중국에서 이 호수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노래한 〈댜츠滇池〉(1957) 등은 1958년(48세)에 모든 당적을 박탈당하고 해직될 때까지 각각 그 해를 대표하는 정치 서정시로 꼽을 수 있다. 이 시들은 모두 그것이 찍어진 시대와 시인이 생활하던 공간의 정치적 분위기가 시인의 관념과 창작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에는 정치 서정시는 아니지만 北京에서 우리나라의 춤꾼인 최승희(1911-1967)와 그녀의 딸 안성희(?)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아 6월 초에 쓴 〈어머니와 딸 母親和女兒〉이란 시가 있다. 이 시는 〈최승희에게 給崔承姬〉와 〈안성희에게 給安聖姬〉란 부제로 두 수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춤사위가 '감옥'에서 '자유와 광명을 갈구'하는 '조선의 고난'을 노래한다면, 딸의 춤사위는 '조선의 신생'을 노래한다며 사뭇 정치적인 해석을 주고 있다. 한국동란에서 중공군이 1950년 11월 27일 개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딸인 안성희의 춤사위를 묘사한 마지막 연을 "승리의 햇빛이/ 너의 얼굴을 비추고 있고/ 너는 노동과 애정/ 투쟁과 해방을 노래한다"<sup>13)</sup>라고 끝을 맺은 것은 한국동란에 참전한 중국 장병들에 대한 위무라고도 볼 수 있다.

1958년 黑龍江省 密山縣 임업시험장에 下放되어 황무지를 개간하였고, 1959년 잠시 北京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나 다시 新疆의 우루무치로 가서 生產建設兵團의 일을 하면서 그곳의 농민과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했다. 1960년 8월에는 新疆의 쓰허쯔石河子 農墾部 건설병단 農8師에 배속되었다. 1961년부터 1966년 '문화대혁'

13) 艾青, 《艾青全集》(第2卷), p. 89. 勝利的陽光/ 照在你的臉上/ 你歌唱勞動和愛情/ 鬭爭和解放

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이칭은 쓰허쯔에 머물면서 틈틈이 황량한 대지를 개척하는 자료들을 모았다. 1967년 1월 쓰허쯔에도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가 닥쳐와 農8師에서 가장 생활여건이 열악한 144사단 2대대 8중대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72년 11월 다시 農8師로 돌아왔지만 오른쪽 눈이 백내장으로 실명하기에 이르러 1973년 봄 北京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9월 고향 畷田蔣으로 가서 잠시 머무르다 10월 新疆으로 돌아갔다. 1975년 봄 17년 만에 北京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올 수 있었고 어느 노동자가 내준 방 한 칸에서 北京의 생활을 시작하였다.<sup>14)</sup> 1976년 10월 四人幫이 실각하자 그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1977년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그녀의 노래를 사랑한다〉란 시를 오랜 창작의 공백기 끝에 썼지만 발표가 안 되었고, 앞서 인용한 1978년 4월 30일 《文匯報》에 등장한 〈붉은 깃발〉이란 시가 원로 시인 아이칭의 歸來를 알리는 신호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復權되어 창작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中國作家協會의 副主席으로까지 선임되어 빈번하게 해외를 방문하며 국제간의 문학교류를 담당하게 되었다.

復權 후에도 아이칭의 정치 서정시는 그의 정치적인 활동량만큼이나 많았다. 1978년만 보더라도 창작한 총 23편의 시 중에서 12편이 정치 서정시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대표작으로 常林대대의 아가씨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여 국가에 헌납하는 행위를 찬양한 〈서로에게 발견되다互相被發現〉, 大慶에 활짝 핀 코스모스를 보고 延安의 코스모스가 생각난다는 〈코스모스波斯菊〉, 사십 리에 걸친 제강업 도시 鋼都와 아름다운 鞍山을 찬미한 〈鋼都에 찬鋼都贊〉, 광명의 상징인 빛을 찬미하며 새로운 시대가 인민과 함께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빛의 찬가光的

14) 俞景朝, 〈艾青의 生涯研究〉, 《中國學論叢》 제4집, 1995, pp. 202-203.

15) 艾青, 《艾青全集》(第2卷), pp. 391-471. 정치 서정시적 경향을 갖는 12편의 시로 〈붉은 깃발紅旗〉, 〈서로에게 발견되다互相被發現〉, 〈쥐 죽은 듯한 전선靜悄悄的戰線〉, 〈손에 눈이 있다手上長眼睛〉, 〈코스모스波斯菊〉, 〈鋼都에 찬鋼都贊〉, 〈이곳으로 오세요請到這邊來〉, 〈오리 이야기鴨子的故事〉, 〈鋼都의 밤鋼都夜〉, 〈과도 꼭대기에서在浪尖上〉, 〈동방은 어떻게 붉어졌나東方是怎樣紅起來的〉, 〈빛의 찬가光的讚歌〉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서정시란 시의 내용에 있어서 ①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사회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② 그 주인공들인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 대한 칭송 ③ 공산당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찬양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赞歌》(1978) 등을 꼽을 수 있다.

1979년부터 사실상 창작의 마지막 연도인 1984년까지 아이칭은 해외의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감회들을 시로 창작하였다.<sup>16)</sup> 1979년에는 독일의 본, 함부르크, 뮌헨 등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이탈리아의 로마와 베니스를 방문하였다. 1980년 6월에는 中國抗戰時期文學國際討論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파리와 니스, 이탈리아의 로마를 방문한 후 7월초에 北京으로 돌아왔다. 8월말에는 홍콩을 경유하여 미국의 아이오와, 시카고,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여행했다. 1982년 4월에는 亞洲作家討論會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와 교토를 방문했고, 1983년 1월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그의 눈에 비춰진 서구의 도시들에 대한 감흥을 쓴 이 시들을 정치 서정시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그중 상당수가 그 도시의 이국적 정취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타락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도시들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시인의 관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 느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 11월 17일에 씌어진 〈뉴욕纽约〉이란 시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중략)

땅거미가 아래로 드리워지면  
 집집마다 불야성  
 어떤 환각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러나  
 누가 환각에 의지해 살 수 있겠는가?  
 현대미술관  
 강철 조각품들  
 전광판 그림들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을 구성한다  
 천태만상의 기괴한 사상들이

16) 艾青, 《艾青全集》(第2卷)은 1984년 씌어진 정치 서정시 〈전 세계가 모두 천안문을 바라본다 全世界都看見天安門〉을 끝으로 아이칭의 창작을 마감하고 있으나 《艾青詩全篇》(下卷)(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에서는 〈울금향鬱金香〉 1985년,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上帝在哪〉 1988년, 〈무제無題〉 1988년 등 3수를 더 주고 있다.

모두 여기서 출현했다  
 물욕 세계의 정상  
 어떤 이는 천당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게다가 자유의 여신상은  
 단지 하나의 희미한 형상일 뿐  
 외로이 우뚝 서서  
 강 맞은편 조그만 섬 위서  
 망연히 이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sup>17)</sup>

1985년(75세)부터 노령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칭의 새로운 시창작은 거의 드물었다. 그는 병마와 싸우는 17년간의 오랜 투병생활 끝에 1996년 5월 5일 北京에서 심장병으로 86세의 생을 마감하였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작품들 속에서도 정치 서정시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1979년에서 1982년까지 해마다 대표적인 정치 서정시 두 편씩을 찾아본다면, 1979년에는 중국의 분단을 슬퍼하며 하루속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타이완 동포에게致台灣同胞〉와 사인방이 물러나면서 인민들이 새롭게 맞이한 봄을 찬미하는 〈매혹적인 봄을 맞이하며迎接一个迷人的春天〉를 들 수 있다. 1980년에는 문화대혁명의 만행을 규탄한 〈역사적 존엄歷史的尊嚴〉과 중국 군사지도자인 주더朱德(1886-1976)을 찬양한 〈주더 총사령관과 아이들朱總司令和孩子们〉을, 1981년에는 홍콩의 유래를 말하며 그 자본주의적인 번영과 사치를 비난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부를 축척한 것을 찬양하는 〈홍콩香港〉과 쑨원의 부인이자 반파시스트운동을 지원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국가 부주석 등을 역임한 쑹칭링宋慶齡(1892-1981)을 찬양한 〈쑹칭링에게贈給宋慶齡〉를, 1982년에는 중국 공산당 총리로 중국인들의 추앙을 받았던 저우인라이周恩來(1898-1976)의 살아있을 때의 에피소드, 인품, 장례식 때의 인산인해를 이룬 애도의 물결 등을 찬양한 〈청명 시절 비는 흩날리고清明时节

17) 위의 책, pp. 763-766. 當夜幕下垂/ 大紐約的萬家燈火/ 比任何幻境更絢麗/ 但是/ 有誰能靠幻境生活呢/ 現代美術館/ 鋼的雕塑/ 電光的繪畫/ 構成奇麗的幻境/ 千百種的奇思怪想/ 都在這裏出現了/ 物慾世界的峯頂/ 有人進入天堂/ 有人進入地獄// 而自由神/ 只是一個影子/ 孤單地挺立在/ 河流對岸的一個小島上/ 茫然地看着這個大都市

雨纷纷)와 지중해에서 漢川輪이란 중국 증기선이 조난을 당한 그리이스 선박의 선원들을 구조하는 장편 서사시로 은근히 중국인의 영웅적 행위를 찬양하는 〈온 세상이 모두 형제다四海之內皆兄弟〉를 들 수 있다. 1983년과 1984년에는 창작의 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각각 5편씩인데, 뉴질랜드 사람으로 1927년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인의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동고동락을 함께 한 루이 알레이 Rewi Alley(1897-1987)를 찬양한 〈알레이에게 경의를 표하며向艾黎致敬〉(1984)와 천안문을 보수한 후 35년 전에 신중국 탄생의 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의 미래를 찬양한 〈전 세계가 모두 천안문을 바라본다全世界都看見天安门〉(1984)를 정치 서정시로 간주할 수 있다.

### 3. 짧지만 고도로 응축된 서정

중국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아이칭 후기 시의 태반을 점유하고 있는 정치 서정시는 형식상에 있어서 대부분이 산문투나 구호투의 언어로 장황하고 중복되어 리듬감이 매우 거친 장편들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무절제하게 토로하는 공허한 개념적인 서사에 불과한 작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들이 그의 시의 강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시의 강점은 편폭은 짧지만 선명한 상징과 은유 등을 통하여 고도로 응축된 서정을 담아내고 있는 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좋은 예로 〈암초礁石〉라는 시를 보기로 하자. 이 시는 1954년 7월 25일 파블로 네루다의 50탄신을 경축하기 위해 칠레를 방문했을 때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씌어진 시이다.

파도가, 파도가  
쉽도 없이 돌진하여  
모두 그 발아래서  
포말로 부서져, 흩어진다……

그의 얼굴과 몸이  
칼에 베인 것 같더라도  
의연히 거기 서서  
미소를 띠우며, 바다를 바라본다 ……<sup>18)</sup>

어찌 보면 44세란 중년의 나이에 아이칭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암초’란 형상을 빌어 반추해보는 시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의 부친의 압력, 청년 시절의 감옥에서의 고초, 피난 시절의 고난 등 인생의 수많은 재난과 곤경을 ‘파도’로 암시적으로 나타내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꿋꿋하고 강인한 자아의 형상을 ‘암초’로 은유하고 있다. “역사의 풍운 속에서도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여, 용감하게 생활을 영접하고, 용감하게 각종 도전을 영접하고 있는”<sup>19)</sup> 삶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함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칼에 베인 것 같더라도” 그는 “의연히 거기 서서/ 미소를 띠우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정직하고 선량한 신념은 어떠한 악의 세력의 도전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란 인생의 철리를 담고 있는 시이다.

1949년에서 復權(1978년) 전까지 짧지만 고도로 응축된 서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수작들을 살펴보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백인 갓난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흑인 아가씨를 선명한 흑백의 대비를 통하여 묘사하며 그 가련한 삶을 동정하는 〈흑인 아가씨가 노래하고 있다一个黑人姑娘在歌唱〉(1954), 진주조개의 형상을 빌어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표현한 〈진주조개珠贝〉(1954),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태양을 영접하며 사라지는 금성을 예찬하는 〈새별启明星〉(1956), 소박한 시어로 샘물에 빗대어 높은 산속의 은일한 삶을 노래한 〈샘泉〉(1956), 고원의 낮과 밤을 대비하며 인생의 철리를 담고 있는 〈고원高原〉(1956) 등을 들 수 있다.

1978년에 씌어진 〈거울镜子〉이란 시도 ‘거울’이란 상징을 통하여 인간사의 오

18) 艾青, 《艾青全集》(第2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 180. 一个浪, 一个浪/ 无休止地扑過來/ 每一个浪都在它脚下/ 被打成碎沫, 散開……// 它的臉上和身上/ 象刀砍過的一樣/ 但它依然站在那裡/ 含着微笑, 看着海洋……

19) 牛漢, 郭寶臣 主編, 《艾青名作欣賞》(北京: 中國和平出版社, 1993), p. 371.

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는 ‘거울’이란 구체적 사물로 ‘진실에 대한 거짓 없는 반사’라는 추상적 관념을 나타내고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반사하는 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울’로 그러하지 못한 인간의 심리를 풍자하고 있는 이 작품은 아이칭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이다.<sup>20)</sup>

다만 하나의 평면일 뿐이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는 진실을 가장 사랑하고  
절대 결점을 숨기지 못한다

그는 그를 찾는 이에게 충실하여  
누구든 그에게서 자신을 발견한다

술에 취한 별건 얼굴이건  
백발이 된 귀밑머리가건

어떤 사람은 그를 좋아한다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를 싫어한다  
그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를 부수지 못해 한하기도 한다<sup>21)</sup>

하나의 평면에 불과한 ‘거울’이지만 그것은 세상 누구보다도 “진실을 가장 사랑하고/ 절대 결점을 숨기지 못한다.” 또한 “그를 찾는 이에게 충실하여/ 누구든

20) 葉櫟, 《艾青作品欣賞》(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6), p. 199.

21) 艾青, 《艾青全集》(第2卷)(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p. 455-456. 僅僅是一個平面/ 却又是深不可測// 它最愛真實/ 決不隱瞞缺點// 它忠於尋找它的人/ 誰都從它發現自己// 或是醉後酡顏/ 或是鬢如霜雪// 有人喜歡它/ 因為自己美// 有人躲避它/ 因為它直率// 甚至會有人/ 恨不得把它打碎

그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다. 사실상 ‘거울’은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 같이 진실한 모습을 비춰줄 뿐 사람에게 따라서 다른 경우가 없다. 만약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거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거것으로 진실을 감추려하는 그 사람의 잘못일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거울’은 평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진리와 풍부한 예술적 함의가 담겨 있다. 또한 ‘거울’은 그 자신의 품성도 없기에 그를 빌어 세상 사람들의 여러 품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그를 부수지 못해 한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듯 입체감을 가진 형상인 ‘거울’ 상징의 사용은 생활 체험에 바탕을 둔 아이칭의 깊은 상상력과 연상 능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79년에 씌어진 〈희망希望〉이란 시도 짧지만 ‘희망’의 속성을 잘 포착한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서 ‘희망’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희망’은 늘 ‘환상’이란 속성을 가지며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 다닌다. 動的인 속성에서 ‘희망’은 당신보다 늘 앞서 걸어가고자 한다. 形象의 속성에서 추상적 개념인 ‘희망’은 “빛처럼 형태도 없고, 바람처럼 불안정하다.” 심지어 시종일관 당신과 거리를 두기에 “창 밖을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붙잡기도 힘들다. 靜的인 속성에서 희망은 “강변의 나비처럼/ 교활하고 아름답다.” ‘올라가면’ ‘날아가고’ ‘모른 채하면’ ‘쫓아’오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죽을 때까지 당신과 더불어 살고 있다. ‘희망’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비유적 이미지리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시는 다음과 같다.

꿈의 친구  
환상의 자매

원래 너의 그림자  
하지만 늘 너보다 앞서 걸어가는

빛처럼 형태도 없고  
바람처럼 불안정하다



그녀와 너 사이엔  
시종 거리가 있나니

창 밖을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강변의 나비처럼  
교활하고 아름답다

네가 올라가면, 그녀는 날아가고  
네가 그녀를 모른 채하면, 그녀는 너를 쫓아온다

그녀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너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sup>22)</sup>

〈거울〉과 〈희망〉을 포함하여 復權 후에 씌어진 짧지만 고도로 응축된 서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수작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물고기 화석의 형상에 비유하며 삶의 의지를 노래하는 〈물고기 화석魚化石〉(1978), 우산과의 우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타적인 인생철학을 노래한 〈우산傘〉(1978), 번개의 속성을 통하여 그 정신의 힘을 예찬한 〈번개電〉(1978), 불의 성격과 물의 모습을 지닌 술의 효능을 예리하게 잘 포착한 〈술酒〉(1978), 사막에서 자라나는 선인장의 강건하고 깨끗한 정신을 노래한 〈선인장仙人掌〉(1979), 삶에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느껴지는 소박한 감정을 닳을 올리고 내리는 선원의 마음에 비유한 〈간절히 바라며盼望〉(1979), 메아리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공통점을 재미있게 표현한 〈메아리回聲〉(1979), 물도 진흙탕도 무서워하지 않고 대지를 갈고 있는 물소의 성질을 인생사에 비유하여 노래한 〈물소水牛〉(1980), 꿈에 대한 정의를 예리하게 잘 포착한 〈꿈夢〉(1980), 사람들이 봄을 사랑하는 철리를 담고 있는 〈봄春天〉(1982), 백조의

22) 艾青, 《艾青全集》(第2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pp. 526-527. 夢的朋友/ 幻想的姊妹// 原是自己的影子/ 却老走在你前面// 像光一樣無形/ 像風一樣不安定// 她和你之間/ 始終有距離// 像窗外的飛鳥/ 像天上的流雲// 像河邊的蝴蝶/ 既狡猾而美麗// 你上去, 她就飛/ 你不理她, 她永遠陪伴你/ 一直到你終止呼吸

아름다운 자태를 잘 묘사한 〈백조天鵝〉(1983) 등을 들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삼·사십 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아이칭의 후기의 창작은 전기에 비해서 예술적인 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전기의 끝부분인 연안시기(1941-4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이전의 시대정신·민족전통·개체생명이 잘 융합된 ‘우울’과 ‘엄숙’의 서정으로부터 점차 새로운 역사적 환경과 요구에 기인하여 시인의 지나친 주관적 감정과 자유와 해방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찬양가’체의 공허하고 개념적인 서정들이, 거칠고 투박한 리듬으로, 장황하고 중복되게 등장하기에, 그의 냉정하고 자성적인 ‘우울한 영혼’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아이칭은 문단에서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게 상당수의 정치 서정시를 남발했다. 1958년(48세) 모든 당적을 박탈당하고 下放을 가서 1978년(69세) 復權된 영향으로 인하여, 1978년 이후의 창작들이 과거의 회한과 고난을 담고 있다는 점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럼에도 도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방만한 형식의 ‘찬양가’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시학적 입장이 현실주의적 창작 경향에다 낭만주의와 애국주의적 정신, 상징파적 기법을 활용한 토대 위에 건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창작은 현대주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시가 아니라 일종의 현실주의적 입장을 띤 민족주의적 시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시의 출발점이 된 ‘토지’를 떠나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그의 시가 존립할 근거는 희박해졌다. 이렇듯 후기 시의 주제의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인간과 삶의 보편적인 정감을 담아내려는 짧은 편폭의 소박한 언어로 씌어진 응축된 서정 속에서 아쉽지만 원로 시인의 풍모를 찾아볼 수 있다.

《參考文獻》

- 艾青. 《詩論》.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0.
- 艾青. 《艾青全集》(第1-5卷).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1.
- 艾青. 《艾青詩全篇》(上·中·下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 司馬長風. 《中國新文學史》(上·中·下卷). 香港: 昭明出版社, 1978.
- 葉橿. 《艾青作品欣賞》.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6.
- 牛漢, 郭寶臣 主編. 《艾青名作欣賞》. 北京: 中國和平出版社, 1993.
- 龍泉明. <艾青的詩歌審美價值觀論析>, 《川東學刊(社會科學版)》. 第4卷 第3期, 1994.07.
- 張永鍵. <艾青詩學美學簡論>, 《文藝理論與批評》. 1997. 01.
- 龍泉明. <艾青四十年代詩歌創作論>, 《文學評論》. 第5期, 1998.
- 陳旭光. <嚴肅時代的自覺-論四十年代現代主義詩潮對象徵主義的反思和超越>, 《文學評論》 第5期, 1998.
- 程光燁·吳曉東·孔慶東·郜元寶·劉勇 主編. 《中國現代文學史》.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
- 呂薇芬, 張燕瑾 主編. 《現代文學研究》. 北京: 北京出版社, 2001.
- 徐雁. <論艾青詩歌創作藝術的獨特美>,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5卷, 第6期, 2002.11.
- 李潤霞. <以艾青與青年詩人的關係為例重評‘朦朧詩論爭’>,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第三期, 2005.
- 정성은. <애청시의 예술성과 사상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박종숙. <애청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오경희. <艾青 中期詩 研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손혜란. <艾青後期詩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육대학원, 2003.
- 박남용. <애청의 근대체험과 시적 이미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우광. <艾青 전기 시의 심미 특색 연구>. 《中國語文論叢》 47집, 2010.12.
- Eoyang, Eugene, ed. *Selected Poems of Ai Q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McDougall, Bonnie S. and Louie, Kam. *The Literature of Chin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Ai Qing's poems after the year 1949, especially focusing on his political lyrics that cover almost half the existing two hundred seventy nine poems. In this period Ai Qing establishes a poetic trend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ems written before the year 1949. This trend toward political motivation has already appeared in his poems around the years of his stay at Yanan 延安 (1941-45). These poems are a full of his egoistic feelings to the White Terror, eulogies to the leaders of Chinese Communist and New Communist China, and abstract idealism for the proletariat. written in the style of a folk song. These poems are failure to stir the feelings of others, because they are vacant in content and low-grade in style.

Among the poems after the year 1949, the short lyrics, containing diverse feelings of life's philosophy, are worth while paying our attention. These poems are sincere and good enough to show his sense of the in-depth imagination and the ability to associate imagery.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grasp, vague, and elusive, are presenting clearly before the reader in these poems. Even though they are not many in quantity, they can be considered as being representative of his poems after the year 1949.

**Key words:** Ai Qing艾青, Poems of Ai Qing艾青詩, Truth, Political Lyrics 政治抒情詩, Ai Qing's Short Lyrics 艾青短詩

이 논문은 2010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